



임성재

임성재 '내년 25세 이하 기대주 톱10'

PGA투어 선정...10명 중 네번째로 꼽아

임성재(22)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선정 내년 25세 이하 기대주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PGA투어 공식 홈페이지 PGA투어닷컴은 23일(한국시간) 게시한 '2021년에 주목해야 할 25세 이하 선수' 10명에서 임성재를 네 번째로 뽑았다.

올해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첫순가락으로 뽑혔고, 푸에르토리코오픈 챔피언인 빅토리 호블란(노르웨이)과 트윙스트 스윙으로 유명한 매슈 울프(미국)가 각각 2위와 3위로 지목됐다.

PGA투어닷컴은 "임성재가 해마다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애틀랜타에 집을 구한 것은 딱 맞는 거주지 선택"이라고 썼다.

투어 챔피언십은 페덱스 랭킹 30위 이내 선수만 출전하기에 투어 챔피언십 출전은 곧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는 뜻이다. 임성재는 루키 시즌인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PGA투어닷컴은 임성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PGA투어가 중단되면서 상승세가 꺾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마스터스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내고 설명했다.

이밖에 작년 신인왕 스코티 셰플러(미국), 호아킨 니에만(칠레), 윌 찰러토리스(미국), 아론 와이스(미국), 샘 번스(미국), 닉 레드먼(미국) 등이 25세 이하 기대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듀랜트·어빙 48점 합작

브루클린 NBA 개막전 대승

케빈 듀랜트와 카이리 어빙을 앞세운 브루클린 네츠가 2020-2021시즌 미국프로농구(NBA) 개막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완파했다.

브루클린은 2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0-2021 NBA 개막전 홈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를 125-99로 제압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듀랜트와 어빙을 영입했으나 듀랜트의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며 전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던 브루클린은 마침내 이들을 모두 가동한 새 시즌 첫 경기에서 위력적인 면모를 뽐내며 대승을 챙겼다.

2005-2006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던 명 가드 출신 스티브 내시 브루클린 감독은 NBA 사령탑 데뷔전을 완승으로 장식했다.

2018-2019시즌까지 5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가 지난 시즌 서부 콘퍼런스 최하위로 떨어진 골든스테이트는 대패로 무거운 첫 발을 땀다.

경기 시작 22초 만에 골든스테이트가 스텔 폰 커리의 자유투로 개막을 알리는 득점을 먼저 올렸지만, 브루클린이 듀랜트의 3점포와 점프슛으로 7-4로 앞지른 뒤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갔다.

1쿼터 종료 7분 20초 전엔 듀랜트의 덩크로 18-8, 2분 29초 전엔 어빙의 3점 슛에 36-17로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

전반에만 어빙이 24점, 듀랜트가 12점을 몰아치며 브루클린이 63-45로 앞섰다.

골든스테이트는 후반 들어서도 상대의 탄탄한 수비에 고전하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3쿼터 7분 22초를 남기고는 브루클린이 80-49, 30점 차 넘게 달아나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했다.

듀랜트와 어빙을 비롯한 두 팀의 주축 선수가 대거 빠진 채 이어진 4쿼터에서도 브루클린이 30점 차 안팎의 리드를 지켜냈다.

어빙이 3점 슛 4개를 포함해 양 팀 최다인 26점을 뽑아냈고, 듀랜트는 브루클린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정규리그 경기에서 부상 공백이 무색한 모습으로 22점 5리바운드를 올려진 정팀을 이끌었다.

골든스테이트에선 커리가 20점 10어시스트로 분전했다. /연합뉴스



강력한 태클 "잡았다" 23일 미국 플로리다 FAU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리검 대학과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미식축구 경기에서 브리검 대학의 라인백이 강력한 태클로 상대 선수를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체육상 시상



3개 부문 20명 수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2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0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 한해 동안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장애인체육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체육진흥상 전문체육 부문에서는 도쿄패럴림픽에 보치아 국가대표로 선발된 노영진의 2명, 생활체육 부문에서 한해정(서구장애인체육회)외 3명이 상을 받았다. 장애인체육인의 활동에 기여한 언론 부문은 임영진(광남일보), 자원봉사 부문은 박경순씨를 비롯한 장애인 체육회 직원들까지 총 3개 부문 20명의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장이 전달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 공식 출범



전남체육 75년 발자취 재조명

전남체육 75년 발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지난 22일 김재무 회장을 비롯한 전남체육사 편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사진)

전남체육사 편찬위원장은 서정복 전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김전옥 해남동초등학교 교장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는 1989년에 편찬된 전남

체육사를 토대로 최근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고, 연도별 주요 체육사적 사건과 인물을 부각하고 각종 종합체육대회 기록 등을 수록할 계획이다. 전남체육사는 오는 2021년 8월 발간될 예정이다.

김재무 회장은 "역사는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각계 각층에서 전문적이고, 전남체육 발전에 기여도가 높으신 위원 및 자원단을 통해서 전남체육의 역사를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원더 우먼 1984
2관	원더 우먼 1984, 도굴
3관	이웃사촌
4관	원더 우먼 1984 100%올프루들이 될순 없어
5관	원더 우먼 1984, 런
6관	원더 우먼 1984
9관	조제
7관 씨네카를	원더 우먼 1984, 러브레터
8관 씨네카를	도굴, 러브 액츄얼리, 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초연 21회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리처드 용재오닐 '선물'

2020. 12. 2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